

## 요코테의 눈 축제

요코테의 눈 축제는 매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일본에서는 음력 1월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을 고쇼가쓰(정월 대보름)라고 부릅니다. 요코테의 눈 축제는 그날을 경사스럽게 여기고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첫 이틀간은 눈을 돔 형태로 쌓은 후 안을 파내서 만든 ‘가마쿠라’ 행사가 개최됩니다. 가마쿠라 안에는 명석을 깔고 화로뿐만 아니라 물의 신을 기리는 신단을 설치합니다. 이 작은 신단이 비치된 가마쿠라가 시내의 다양한 장소에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자노사키 다리의 하천 부지에서는 수많은 소형 가마쿠라를 볼 수 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본덴(梵天)’을 신사에 봉납하는 의식이 거행됩니다. 본덴이란 화려한 머리 장식이 달린 작대기를 뜻합니다. 이 작대기를 짊어진 사람들이 시내에서 아사히오카야마 신사까지 3.5km를 천천히 행진합니다. 그리고 신사에 본덴을 봉납하고 새해의 안전과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 가마쿠라

가마쿠라 제작에는 4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무가와 상인이 각자 다른 형식으로 설동(눈 속을 파서 만든 구덩이)을 만들어 새해를 축하한 행사가 융합되어 현재의 형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1900년대 초반 가마쿠라는 각 가정에서 자신의 아이를 위해 집 앞에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눈 축제용 가마쿠라는 전문 장인이 만들기에 옛날 가마쿠라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높이는 3m인 것도 있으며 몇 주간 부서지지 않고 세워져 있습니다. 먼저 눈을 돔 모양으로 쌓아 올리고 2~3일 열려서 단단하게 굳힙니다. 이후 한나절에 걸쳐 돔 안의 눈을 파내서 신단과 공물을 두는 눈으로 된 선반을 만듭니다. 눈 축제에는 약 60개의 가마쿠라가 전시됩니다. 또한 자노사키 다리 아래의 하천 부지에서는 몇천 개나 되는 작은 미니 가마쿠라가 줄지어 있습니다.

## 본덴(梵天)

축제 2일째, 3일째에 ‘본덴’을 진행합니다. 이는 본덴이라고 불리는 호화로운 머리 장식이 달린 작대기를 짊어진 사람들이 거리를 천천히 행진하여, 아사히오카야마 신사에 본덴을 봉납하는 행사입니다. 본덴에는 일시적으로 신령이 강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덴은 시내의 각 지역과 현지 기업이 제작합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본덴은 제작하는 지역과 그룹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키타 외 지역에서도 본덴 축제는 시행되지만, 요코테의 본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이 5m, 무게 30kg으로 거대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 장식에 십이지의 동물이나 인형이 조합된 장식이 호화롭다는 점입니다.

2월 16일에는 시청 근처 공연장에서 본덴의 디자인과 완성도를 겨루는 본덴 쿡쿠르가 개최됩니다. 다음날인 17일에 본덴은 아사히오카야마 신사로 옮겨집니다.

참가자들은 교대로 본덴을 밟으며 험준한 산길을 올라 신사로 향합니다. 경내 입구에 도착하면 본덴을 밟은 남자들은 모여든 사람들로 혼잡한 문을 서로 부딪치듯이 겨뤄서 빠져나간 후 본전으로 향합니다. 마지막에는 본덴을 본전에 봉납하고 마을을 위해 풍작, 사업 번창, 가족의 안녕을 빕니다.